

특별취재

대일내장산골프장 조성 첫 삽

정읍시·대일개발, 18홀 대중제 골프장·골프텔 등 갖추고 2018년 개장



정읍시, 우리쌀 소비 촉진 간담회

정읍시가 지난 10일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연이은 풍작에도 불구하고 쌀 값 하락과 소비 둔화로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소비 촉진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 직원 100인 이상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요식업소, 여성단체 등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참석자들에게 쌀 생산과 소비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쌀 소비에 다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정읍지역 벼 재배 면적은 1만3천895ha로, 모두 7만9천855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확량은 0.1h 당 57kg이며, 이를 벼로 환산하면 821kg이다.

예상 소비량은 정부 비축미 수매와 시장 격리곡 수매, 지역농협 자체 수매 그리고 자가 소비량을 포함해 모두 5만2천185톤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재고량이 생산량의 30%인 2만3천670톤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범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쌀 애용 범시민운동을 펼치는 한편 출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향 쌀 사주기 운동 전개, 자매결연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쌀 판매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초·중고 학생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치고 농협 및 민간RMC 등 쌀 공급 업체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와 홍보활동을 가지며 질 좋은 정읍 쌀을 애용할 것을 당부하는 등 쌀 정읍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와 (주)대일개발(회장 김호석)이 협약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일내장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지난 11일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시와 대일개발은 이날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 전복도의회 이학수 의원, 대일개발 김호석 회장,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정세진지사장, 재경정읍시민회 정태희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시와 대일개발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 2018년 봄 시범리운당을 거쳐 본격 개장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6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일내장산골프장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90만288㎡의 부지에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18홀 규모, 총연장 6천539m(7.151yd)의 퍼블릭(대중제)으로 조성된다.

골프장 조성부지는 내장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청정자연과 도심이 공존하

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40분 거리에 광주와 전주 등 대도시가 있어 개장되면 골퍼(Golfer)들의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장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골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생기 시장은 "대일내장산골프장은 대일개발 김호석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조성부지가 경관이 수려하고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자리해 있어 골프장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정읍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읍 출신의 김호석 회장은 "골프도치고 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즐겁고 편안한 골프장이 될 것이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골프장이 정읍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공식에 앞서 대일개발은 2015년 7월 한국관광공사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골프장 부지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대일내장산리조트클럽'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 시행 승인 취득과 골프장 조성 계획 및 사업 변경 승인 실시절차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친 바 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대일개발(주)은 1983년에 창립하여 임직원 97명과 함께 매출액 218억원(2013년 기준)을 달성한 견실한 기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전통가양주 연구회는 올해로 6년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운동을 펼쳐 왔다.

“김제시 전통 가양주 연구회원들, 전통과 미래를 책임지다”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가양주 제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육성하는 전통가양주 연구회를 육성중에 있는데 이들 회원들이 제18회 지평선축제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을 주도하였으며 아울러 축제 운영 수익금을 김제사랑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전통가양주 연구회는 올해로 6년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운동을 펼쳐 왔으며 김제 지평선축제를 이용한 전통가양주를 전통방식으로 빚으며, 지역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효능과 맛

을 재연하고 보급해 왔으며 지평선축제 등 지역축제를 통해서도 선을 보여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평선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농주인 자격리를 '대한민국 팥도 막걸리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음 품평회를 가졌으며 쌀을 원료로 한 전통가양주, 전통소주를 시음해보도록 하고 전통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진자 우리술을 보급하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수익 보다는 문화운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기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일에 사명감이자 열매에는 김제 사랑 장학재단에 기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김제전통가양주 연구회는 미래 또한 함께 일구어 아할 일들이기에 값비싼 노고의 댓가를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쓰면 좋겠다고 여겨 가까이 장학금으로 내놓게 된 것이다. 김한석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김제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서 한층 더 발전한 글로벌 축제로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전통가양주를 세계의 이름나 명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실력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라며 품격높은 아름다운 술문화 운동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겨울철 노인 대상 방문판매업소 대상 지도 점검

정읍시가 겨울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과 건강식품 등 방문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3개소의 방문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

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인들의 대상으로 한 약력 상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관방이나 공짜 사은품 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가져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 김치 800포기 어려움 이웃에 전달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김공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축제를 가졌다. 한파가 시작되던 주변의 목거머리, 신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세대 및 장애인들에게 김장을 지원함으로써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고자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해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지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의 김장김치는 맛있게 유명하다. 우리농산물을 이용하여 재료도 아끼지 않고 들볶 넣어 정성껏 버무리는 봉사자들의 손맛 비법이라

고 한다. 이날 담은 김치는 각 가정마다 10kg씩 김치통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관내 100세대에 소중히 전달되었다. 김공순 회장은 "특히 이번 겨울은 추위도 일찍 시작되고 길어질 거란 일기예보에 마음한편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나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고 소감을 전하며 "해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농업인 대동한 마당 잔치가 농업인 2,000여 명과 김종규 부안군수, 김중회 국회의원, 오세용 부안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부안농업인 한마음으로 대동한마당

부안스포츠파크에서 2000여명 참석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17회 부안농업인 대동한 마당 잔치가 부안농업인단체연합회(연합회장 박용석)주최로 지난 11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농업인 2,000여 명과 김종규 부안군수, 김중회 국회의원, 오세용 부안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풍물패의 신명나는 농악과 박진감 넘치는 난타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기념식에서는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 12명과 유공공무원 2명에게 부안군 수상을 표창하고 부안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4명에 대해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축하 공연 등이 진행돼 농업인들의 한해의 피로를 풀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며 우수·봉차·별꽃·차진 등 다채로운 시식행사가 열려 오감(五感)을 자극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우리 부안군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잊지 않고 부안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역어민 권익에 앞장설 것”

한산수 부안피해대책위원회,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강조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니라 서로 대화와 접촉을 통해 지역 피해어민의 권익보호와 어민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다”고 한산수 부안 피해대책위원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조건 반대보다 먼 시야를 가지고 멀리 내다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할 때라며 내민의 이익보다 우리의 발전,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피해대책위원회는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역 어민들을 접촉하며 현행 원자력을 대체할 신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당위성과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속적으로 (주)한국 해상풍력과 논의와 수산업 공존 실증단지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개발이 급근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여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서 풍력단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 오는 2022년까지 1단계(실증) 60MW, 2단계(시범) 400MW, 3단계(확산) 2,000MW를 부안과 고창 해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국산 풍력발전기 Track Record 확보와 경쟁력 제고로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 3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한위원장은 서남해해상풍력단지 부안피해대책위원회는 순수 부안지역 어민들로 구성했으며 해상풍력 건설 시 피해보상, 어민들의 권익향상·보호, 부안군 바다자연 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난 3일 발족, 개소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며 어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 해상풍력(주)은 어민소득 증대 기여 목적으로 지난 10월 위도와 구시포 사이 해상에 플랫폼과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어류병류와 6ha 규모의 복합양식장을 준공하여 시험양식 중으로 향후 해상풍력단지 공간에 에너지 생산 뿐만 아니라 양식장 조성사업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며 어업피해조사도 진행 중으로 18년 초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와 함께 한산수 위원장은 이제 부안은 예전 방 폐장 후유증을 뒤로 하고 친 환경 에너지인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와 낙후된

‘찾아가는 노인건강관리교실’ 호응

정읍시보건소 매주 1회

정읍시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인건강관리교실(이하 건강교실)’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다양한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9월부터 생고를 푸른대학과 청춘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이 달 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한 체조,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공예교실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읍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4.4%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로 인한 치매와 노인 우울증, 만성질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생활 터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임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기초 검진과 치매 예방, 스트레칭 해소를 위한 신바람 노래교실, 웃음 치료, 노년기 신체활성화를 위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 터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